

2019년 국가직 9급 한국사(㉔ 책형) 정답해설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 ② 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 ③ 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 ④ 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는 빗살무늬토기가 나왔다.

1. 정답 : ③

③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신석기시대의 돌무지무덤이나 동굴무덤과는 달리 고인돌, 돌널무덤 등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어져 초기 철기시대까지 그 전통이 이어진다. 선사시대 유적 중 가장 특징이 있는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데, 강화 부근리 유적에는 탁자 모양의 무덤칸 아래에 시신을 묻는 탁자식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①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의 주먹도끼를 이용하고 동아시아 지역은 찌개를 주로 이용하였다는 구분법이 주류였으나,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되어 기존의 구분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②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되면서 철기 시대에 이미 현자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서울 암사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었다.

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에는 형욕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나) 해마다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삼국지』 -

① (가)-5부가 있었으며,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② (가)-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③ (나)-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④ (나)-나쁜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였다.

2.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가)는 부여, (나)는 동예에 대한 내용이다.

④ 동예는 산과 강을 중시하는 습속(習俗)이 있어서 여러 읍락이 산과 강을 경계로 나누어 있으며, 함부로 다른 읍락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함부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면 별로 사람과 소·말을 바치게 하였는데, 이를 책화(責禍)라 하였다.

① 고구려는 계루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의 5부가 있었으며, 고구려 태조왕 때 계루부 고씨의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② 삼한의 지배자 중 세력이 큰 것은 신지라 하였고, 세력이 작은 것은 협측·변예·살해·읍차 등으로 불렸다. ③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고,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어 이곳에서 천군이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한 것은 삼한에 대한 내용이다.

3. (가) 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중략)…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하니 (가)이/가 그 의견을 따랐다.

- 『고려사』 -

- ①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 ②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례를 보급하였다.
- ③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고 청제건원을 주장하였다.
- ④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3.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고려 인종 4년(1126) 이자겸과 척준경의 주장에 따라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한 내용이다.

③ 서경의 대화궁 건립은 인종 대의 사실이다. 인종은 묘청, 백수한 등의 주청을 받아들여 서경으로 자주 행차하였고, 임원역(林原驛) 근처에 대화궁을 지었다. 또한, 묘청 등의 서경 세력은 청제건원과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였다.

① 원 간섭기 때인 충렬왕 이후의 사실이다. 도평의사사는 고려 전기 국방 문제를 담당하던 임시 기구였던 도병마사가 원 간섭기 이후 상설 기구화 및 최고 기구화된 것으로, ‘도당’이라고도 불렸다. ② 성리학은 고려 충렬왕 때 안향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고, 고려 후기 신진 사대부는 유교적인 생활 관습을 시행하고자 『소학』과 주자가 정한 예법서인 『주자가례』를 중시하였다. ④ 고려가 장기적인 대몽 항전을 위하여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최우 집권 시기였던 고종(1232) 때의 사실이다.

4. 밑줄 친 ㉠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상쇄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중략)…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 네루, 『세계사 편력』 -

- ①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 ②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④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4.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은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③ 대한 독립 의군부는 1912년 고종의 밀명을 받은 임병찬이 유생과 의병을 규합하여 조직하였다.

① 암태도 소작 쟁의는 1923년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에서 고율의 소작료를 4할로 내릴 것과 1리 이상의 소작료 운반비용을 지주가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1924년까지 이어졌다. ② 사회주의계 단체인 정우회는 1926년에 조직되었다. 정우회는 일제의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를 모색하면서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신간회 창립의 배경으로도 작용하였다. ④ 1922년 조선 교육령의 개정으로 대학 설립의 길이 열리자 이상재, 한용운, 이승훈 등은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고자 1922년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를 결성하였고, 1923년 다시 민립 대학 기성회를 조직하고 모금 활동과 함께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5. 밑줄 친 ‘성상(聖上)’ 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科目)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의 성법(成法)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셨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聖上)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여섯 권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셨다.

- ①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 ② 『동몽선습』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이다.
- ③ 『삼강행실도』는 모범적인 효자·충신·열녀를 다룬 윤리서이다.
- ④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이다.

5.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세조 때의 『경국대전』 편찬을 완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밑줄 친 ‘성상’은 조선 성종이다.

④ 『국조오례의』는 제사 의식인 길례, 관례와 혼례 등의 가례, 사신 접대 의례인 빈례, 군사 의식인 군례, 상례 의식인 흉례의 오례를 정리한 책으로, 성종 5년(1474)에 간행되었다.

① 『동국병감』은 조선 문종 대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중국과의 전쟁사를 정리한 책이다. ② 아동용 수신서인 『동몽선습』은 조선 중기의 문신 박세무가 저술하였다. ③ 세종 16년(1434)에는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리고 기록한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6. (가)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 각 품(品)의 (가)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 『고려사』 -

- ①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 ②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 ③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하였다.
- ④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6. 정답 : ①

제시된 (가)는 직·산관에게 관품이 아닌 인품을 기준으로 전시를 분급한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976)이다.

- ① 시정 전시과는 광종 때 제정된 자삼·단삼·비삼·녹삼의 4색 공복 제도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자삼을 제외한 단삼·비삼·녹삼은 다시 문반·무반·잡업의 세 층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 ② 경정 전시과는 무신에게 지급된 과등이 크게 향상되어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데, 이는 거란과의 항쟁 과정에서 무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거나, 이들이 담당한 직역이 고역(苦役)이라는 점을 감안해 준 결과로 파악된다.
- ③ 1391년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하여 수조권을 분급한 과전법이 제정되었다.
- ④ 고려 태조 때 실시된 역분전에 대한 내용이다. 역분전은 고려 개국 공신 등에게 충성도와 인품을 고려하여 지급하였으며, 이후 전시과 제도의 모체가 되었다.

7. (가), (나)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을미사변 발발	을사조약 강제 체결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 작전 전개	

- ① (가)－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② (가)－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③ (나)－함경도 권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 ④ (나)－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7. 정답 : ①

을미사변 발발은 1895년 8월, 을사조약 체결은 1905년 11월,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 작전 전개는 1908년 1월에 전개되었다.

① 1898년에 결성된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 상인들이 결성한 상권 수호 운동 단체로, 독립 협회의 노획법 및 연좌법 부활 저지, 자강 개혁 내각 수립 요구, 독립 협회 지도자 17인 석방 운동, 독립 협회 복설 운동, 황국 협회와의 투쟁 등 자주 민권, 자강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였다.

② 105인 사건(1911)은 일제가 안악 사건(안중근의 사촌 안명근이 독립 자금을 모금하다가 적발된 사건, 1910. 12)을 테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으로 확대하여 신민회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애국 계몽 운동가 700여 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05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③ 일본의 경제적 침략으로 인하여 곡물의 유출이 심화되자, 1889년 함경도와 황해도에서는 곡물의 수출을 금하는 방곡령이 선포되기도 하였다. ④ 1904년 보안회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반일 규탄 시위를 전개하여 이에 성공하였다.

8. (가) 왕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제덕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蕃)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여 강국임을 자부하였다.

- ①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
- ② 신라는 급찬 승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 ③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8.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가)는 발해 무왕이다. 동북 만주의 흑수부 말갈족이 발해의 팽창에 위협을 느껴 발해와의 우호 관계를 단절하고 당과 연결하여 발해를 위협하자 무왕은 흑수말갈에 대한 원정을 감행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또한 발해는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당의 압박을 견제하고 정치·외교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였고, 727년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고 국서를 보내게 되었다.

④ 발해 2대 국왕인 무왕은 흑수말갈과의 갈등 과정에서 당과 대립하여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반도 덩저우를 공격하여 자사 위준을 살해하였다.

① 대조영은 698년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을 근거지로 오동산성을 쌓고 나라를 세워 진국(震國)이라 하였다. 이후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국호를 발해로 고쳤다(713). ② 급찬 승정이 발해에 사신으로 간 것은 헌덕왕 때인 812년의 사실이다. 조카였던 애장왕을 죽이고 즉위한 헌덕왕은 신라 하대 귀족들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덕왕은 왕자를 당에 보내 금·은 불상과 불경 등을 전하였고, 이에 따라 당도 헌덕왕 즉위와 동시에 외교적 책봉을 이행하였다. 헌덕왕 때 대당외교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 발해에 대한 사신파견인데, 이 역시 위기에 처했던 내정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추정한다. ③ 무왕 때에는 ‘인안(仁安)’이라는 연호를 사용

하였고,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발해 분왕이다.

9.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군은 사도하자에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적군은 황가둔에서 이도하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하여 왔다. 그런데 적군은 아군이 세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이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급습함으로써 적군은 응전할 사이도 없이 격파되었다.

- 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 ③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도 수행하였다.
- ④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9.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사도하자 전투를 이끈 한국 독립군에 대한 내용이다.

③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인 한국 독립군은 총사령관인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 호로군과 연합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중·한 토일군을 조직하여 쌍성보 전투(1932), 사도하자 전투(1933), 동경성 전투(1933), 대전자령 전투(1933)에서 일·만 연합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① 1929년 남만주에서는 양세봉을 중심으로 국민부가 조직되었고, 중심 조직으로 조선 혁명당이, 예하 부대로서 조선 혁명군이 조직되었다.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영릉가(1932), 흥경성(1933)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② 미쓰야 협정 체결은 1925년의 사실이다.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의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변의 병력을 증강시키고 간도 지역의 경찰력을 대폭 증강시켰다. 또한 한국 민족 해방 운동에 근본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만주의 사실상 지배자였던 군벌 장췌린을 상대로 만주 지역 한인 단속에 대한 교섭을 벌여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④ 1938년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중심이 되었던 조선 민족 혁명당이 중국 국민당의 지위를 받아 직할 부대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10. 밑줄 친 ㉠~㉢과 관련된 임란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시울 인파와 빈화한 큰 도시에 파·마늘·매추·오이 밭 따위는 10묘의 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 답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 밭, 강진의 ㉢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작은 보습으로 이랑에다 고랑을 내는데, 너비 1척, 깊이 1척이다. 이렇게 한 이랑, 즉 1묘 마다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들면, 두둑의 높이와 너비는 고랑의 깊이와 너비와 같아진다. 그 뒤 ㉣ 고랑에 거름 재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 ①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② ㉡-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 ③ ㉢- 『감저보』, 『감저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 ④ ㉣- 발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었다

10. 정답 : ①

- ① 정조 15년(1791)에 내려진 신해통공은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조치이다.
- ②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부터 전래되었고, 조선 후기 농민들은 담배, 약초, 쌀, 목화, 채소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여 판매하였다. ③ 고구마는 감저 또는 남저라고도 불리었는데, 조선 후기 조업이 일본에서 구해 온 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시초이다. 이에 따라 재배법 연구도 행해져 강필리의 『감저보』, 김장순의 『감저신보』, 서유구의 『종저보』 등이 저술되었다. 이 외에도 마령서, 혹은 북저라 불리던 감자 역시 조선 후기 대표적 구황작물로 재배되었다. ④ 조선 후기에는 밭고랑에 씨를 뿌리는 건종법이 시행되면서 밭에서의 토지 생산성이 이전에 비해 급증하게 되었다.

11.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 ④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11. 정답 : ③

-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건국 영웅인 동명왕을 천제의 손자로 인식하고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이다.
- ① 고려 충렬왕 대 이승휴가 저술한 『제왕운기』는 상·하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중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하권은 다시 2권으로 나누었는데, 『동국군왕개국연대(東國君王開國年代)』에서는 단군의 전조선(前朝鮮)부터 후고구려, 후백제, 발해사까지를 7언시로, 「본조군왕세계연대(本朝君王世系年代)」에서는 고려 시조로부터 충렬왕까지의 우리 역사를 5언시로 서술하였다. 삼국사 이전인 단군 조선에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우리 역사를 단군을 정통으로 하여 시작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단군 - 기자 조선 - 위만 조선 - 삼한 - 한사군 - 삼국(무통) - 신라(문무왕 이후) - 고려 - 조선(현종 때까지) 순으로 서술하였고, 단군으로부터 정통이 시작되어 기자로 이어졌다고 이해하는 단기정통론은 후에 안정복의 『동사강목』과 이종휘의 『동사(東史)』로 계승되었다. ④ 「기미독립선언서」에서는 단군기년을 사용하여 발표일을 ‘조선 건국 4252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선언서에는 그 본문에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다.

12.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중략) ...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神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꾀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紀異) 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①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 ②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③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④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12.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일연의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 서문이다. 일연은 여기서 제왕의 탄생과 관련해 ‘꾀력난신’의 이야기가 있어 왔음을 중국의 사례를 들어 말하면서, 우리 삼국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일로 탄생했다는 것도 전혀 꾀이하지 않은 것이라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첫머리에 ‘기이편’을 실는 까닭임을 밝히며 『삼국유사』의 편찬 의도와 사관을 뚜렷이 하고 있다.

② 『삼국유사』는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고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① 무신정권기 교종의 승려인 각훈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해동고승전』(고종 2년, 1215)에 대한 내용이다. ③ 조선 성종 때 편찬된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다. 『동국통감』은 고조선에서 고려에 걸친 통사로서 외기·삼국기·신라기·고려기로 구성되어 있다. ④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이다. 『삼국사기』는 고려 초기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상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13.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폐정 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을/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 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 ②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 ③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 ④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13.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가)는 1894 5월 7일 체결된 전주화약이다.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청과 일본의 군대 개입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전봉준은 청국과 일본에게 군대 주둔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관군에 폐정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동학 농민군을 해산하겠다는 강화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홍계훈이 전봉준의 강화안을 수락함으로써, 동학 농

민군과 정부군은 5월 7일에 전주 화약을 체결했다.

④ 전주 화약 이후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 개혁을 추진하던 동학 농민군은 1894년 9월에 일본군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재봉기를 단행했다. 전봉준은 삼례에 대도소(大都所)를 정하고 농민군의 결집을 추진했다. 삼례에 집결한 4만여 명의 농민군은 총대장 전봉준과 손화중, 김덕명 등의 지휘를 받으면서 논산으로 북상해 갔다. 한편 화평론을 주장했던 북접의 최시형도 반외세라는 명분을 받아들여 무력 투쟁을 지시함으로써,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의 농민군은 10월 9일에 강경에서 남접의 농민군과 합류하였다.

① 동학 농민군의 황토현 전투는 1894년 4월 7일의 사실이다. ② 1892년에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군민에 대해서 수탈을 자행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만석보를 새로 쌓는다는 명분으로 농민들을 동원하고 고율의 수세(水稅)를 징수한 것이다. 전봉준은 농민들과 함께 조병갑을 찾아가서 호소문을 제출하고 수세 징수를 시정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조병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봉준은 1893년 11월 고부 관아를 공격하고 조병갑 처단을 결정한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다. ③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은 약 1,000여 명의 동학교도와 농민을 규합해서 봉기했다. 봉기한 농민들은 고부 관아를 습격해서 조병갑이 불법으로 수탈한 수세미를 군민들에게 돌려주고 만석보의 신보(新堡)를 파괴하고 해산하였다. 정부는 박원명을 고부 군수로 새로 임명하여 유화책을 쓰는 한편,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민란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1894. 2. 15). 그러나 이용태는 봉기의 책임을 농민과 동학교도에게 전가시켰으며, 동학교도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들을 체포하고자 했다. 이에 전봉준 등은 무장에서 동학 접주들에게 통문을 돌려 보국안민과 교조 신원을 위해서 쫓겨할 것을 호소하고 1894년 3월 봉기를 단행했다.

14. (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호 '신라'	9주 5소경	대공의 난	독서삼품과	
확정	설치	발발	실시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 ②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 ③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 ④ 청주(靑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14. 정답 : ①

제시된 연표에서 국호 '신라' 확정은 지증왕, 9주 5소경 설치의 신문왕, 대공의 난 발발은 혜공왕, 독서삼품과 실시는 원성왕 대의 사실이다.

- ① 성덕왕 대인 722년 강화된 토지 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반 백성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였다.
- ② 시장 감독을 위한 동시전의 설치의 신라 지증왕 대의 사실이다. ③ 백성 구휼을 위한 진대법의 실시는 2세기 고구려 고국천왕 대의 사실이다. ④ 청주 거로현(지금의 거제)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은 것은 신라 하대 소성왕 대의 사실이다.

15.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 ③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15. 정답 : ③

③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된 것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목조탑의 구조를 석재로써 변형하여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탑으로서, 백제 멸망 후 1층 탑신 사방에 소정방의 대당평백제국비명(평제문)이 새겨져 있다.

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아 세워졌으며, 이후 조선 세조 때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②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배흘림기둥 양식과 주심포식으로 건축되었다. ④ 17세기에 지어진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16.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가) 을/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자못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심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 (중략) ... 최종,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평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가) 을/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 퇴계집 -

- ①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 ②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 ③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 ④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실 교육기관이다.

16.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가) 교육기관은 강학과 선현들에 대한 제향(祭享)을 담당하던 교육기관인 서원을 말한다. 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1543년(중종 38)에 백운동서원을 설립하고, 이황의 주선으로 '소수(紹修)'라는 사액을 받은 이후 여러 고을에 서원이 건립되었다.

④ 서원은 후진 교육(서재)과 선현의 제사(사묘)를 주된 기능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사람을 결집·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선배 유학자들을 위한 사당을 두어 학문의 정통성을 세우는 동시에 사람 세력의 유지 및 재생산 기능도 담당하였다.

① 지방의 군현에 있던 관학 교육기관은 향교이다. ②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친 교육기관은 서당이다. ③ 성적 우수자에게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준 교육기

관은 성균관이다.

17. (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혜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	(나)
① 조·일무역규칙	조·미수호통상조약
② 조·일무역규칙	조·러수호통상조약
③ 조·일수호조규부록	조·미수호통상조약
④ 조·일수호조규부록	조·러수호통상조약

17. 정답 : ①

① 제시된 자료의 (가)에서 설명하는 조약은 1876년 7월 6일 체결된 조·일 무역규칙(최초의 통상 장정)이다. 전문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무역 규칙은 제1칙에서 입항 수속, 제2·3칙에서 수입 화물 통관 및 검사, 제4·5칙에서 출항 수속, 제6칙에서 미곡류 수출입 인정, 제7칙에서 형세(港稅) 면제, 제8칙에서 일본 선박 고용, 제9칙에서 밀수입자에 대한 치외법권, 제10칙에서 아편과 담배 반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 제11칙에서 무역 규칙의 개정 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 제시된 자료의 (나)에서 설명하는 조약은 1881년 4월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홍집에게 조선이 미국과 연합해야 함을 주장한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전달되었고, 이후 청나라의 중재로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양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에 서로 도와주겠다고 규정한 ‘거중조정(居中調整)’과 영사 재판에 의한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었다.

18.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 친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66년(31세) ㉠ <u>사간원</u> 정언에 제수되다.
1568년(33세) ㉡ <u>이조좌랑</u> 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1569년(34세) 동호독서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을 찬진하다.
1574년(39세) ㉢ <u>승정원</u> 우부승지에 제수되어 『만언봉사』를 올리다.
1575년(40세) ㉣ <u>홍문관</u> 부제학에서 사퇴하고 『성학집요』를 편찬하다.

- ① ㉠ -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② ㉡ -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③ ㉢ -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④ ㉔ -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18.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율곡 이이에 대한 연보이다.

② 이조 좌랑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조의 정6품 실무 관료로 정5품 정랑과 함께 전랑(銓郎)이라 불렸다. 이들 전랑의 권한은 매우 막강한 것이어서 조선의 여론 기관인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에 새로 배속될 사람을 국왕에게 천거하고, 기타 부서의 당하관 인사에 대한 통청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면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대권(自代權)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랑이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현사(賢士)를 추천하여 6품 이하의 벼슬에 직통하게 하는 낭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권한 때문에 이조 전랑과 당하관의 청요직(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등)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서열 관계가 형성되었고, 조정의 여론 형성 과정에서 이조 전랑이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① 사간원은 국가 정책이나 귀족·왕명을 비판하고 간쟁·봉박 업무를 담당한 기관이고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담당한 기관은 승정원이다. ③ 왕의 정책을 간쟁하는 기관은 사간원, 관원의 비행을 감찰한 기관은 사헌부이다. ④ 홍문관은 정2품 대제학을 중심으로 주로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을 담당하였으며 경적(經籍)과 문한(文翰) 관리 및 학술과 문필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한 기구는 교서관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9.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敎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전해주고 밝혀 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찌서이며 ...(중략)...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① ‘조선열’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②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주석·부주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하였다.

④ 『독사신문』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하였다.

19.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박은식이 저술한 「유교구신론」의 내용 중 일부이다.

②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민족정신을 강조한 민족주의 사학자인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역사 저술의 목적이 민족정신, 곧 신(神)을 보존함에 있다고 밝혔다. 즉, 나라는 소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소멸될 수 없는데,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신(神)이 보존되어 있으며 형(形)이 부활할 때가 있다고 하였다.

① 민족주의 사학자인 정인보는 민족정신으로 5천 년간 조선의 얼을 강조하였으며, 안재홍, 문일평 등과 함께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주석·부주석 체제를 택한 1944년 당시 주석을 역임한 인물은 김구이다. ④ 『독사신문』(1908)은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하였던 글이다. 신채호는 『독사신문』에서 역사 서술의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하고 과거의 화이론(華夷論)적 사관이나 일본의 식민 사관을 비판함으로써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20. (가) ~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 ① (나)→(가)→(라)→(다)
- ② (나)→(다)→(가)→(라)
- ③ (다)→(가)→(나)→(라)
- ④ (다)→(나)→(가)→(라)

20. 정답 : ②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조선 건국 동맹을 모체로 여운형이 조직한 단체로, 조선 총독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 1945년 8월 15일에 조직되었다. (다)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개최는 1945년 12월의 사실이다. (가) 김규식과 여운형 등의 중도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 민주 임시 정부 수립 등을 포함한 좌우 합작 7원칙을 제시한 것은 1946년 10월의 사실이다. (라) 남북의 통일 선거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자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 협상을 제의한 것은 1948년 2월의 사실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